

卍

韓國의 크리스마스 썰 夜話 [6]

(1937년 發行分)

이 창 성/크리스마스 썰 동호인, 수집가

1. 크리스마스 썰의 도안 및 도안가

도안 내용은 한국 어린이들의 고유 민속놀이의 하나인 팽이치기를 묘사했으며, 도안가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이며 천재적인 화가 운보 김기창(雲浦 金基昶) 화백이다.

1936년과 같이 복잡자엽서에 사용한 영문 설명서에 의하면 신일한씨의 “나의 한국에서의 어린시절”이라는 글에서 도안 내용이 상세히 적혀있다.

팽이치기는 겨울철에 소년들이 얼음 위에서 즐겨 노는 놀이이며, 팽이는 소나무를 원추형으로 깎아 만드는데 주로 할아버지께서 귀여운 손자에게 만들어 줬다.

썰 배경의 누각은 원도안의 축소로 말미암아 판독할 수 없으나 원도와 포스터 등을 보면 상부 현판에는 양각으로 하부 현판에는 음각으로 각각 “大同門”이라고 한자로 쓰여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평양의 얼어 붙은 대동강 위에서 어린이들이 노는 모습이 현재의 남북분단 상황 아래에서 느끼는 감회가 새롭기만 하다.

2 천재화가 雲浦 金基昶 畫伯의 편모 (片貌)

1932년부터 시작한 크리스마스 썰은 외국인이 시작한 것이라 도안가에 외국인이 많이 등장한 것은 부득이한 일이나 당시의 朝鮮美術展에 연4회나 특선을 거듭한 천재화가의 도안이 크리스마스 썰에 채택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을 금할 수 없었으며, 약관 23세의 청년장애자 화가의 작품은 많은 사람에게 호평을 받았다. 운보는 이어서 1938년의 제기차기 도안도 하였으며, 근래에는 처음 썰 도안을 했던 1937년에서 만 50년이 되는 해인 1987년에 탈춤을 소재로 5종의 썰을 도안하여 우리나라의 썰 향상에 많은 공로를 하였다.

운보는 1914년에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며 조선미술전에 특선을 계속하였다는 것은 전술한 바이며, 썰 뿐이 아니고 포스터, 카렌더의 도안도 그리고 있다.

김화백이 4살때 홍역의 후유증으로 귀머거리와 병어리라는 장애자가 되고 말았으며 국민학교만 졸업하였을 뿐 그

이상의 학교에는 진학을 하지 못하였
다.

그러나 기독교 계통의 병원 간호사였
던 어머니는 아들이 회화에 천재적 재질
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까닭에 이 불행
한 아들의 재능을 위하여 이당 김은호
(以堂 金殷鎬) 화백에게 15살에 수학을
시켜 20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미술전에
서 입선의 쾌거를 이뤘
으며, 처음의 대표작은 '한
국의 동화'로서 유명화가
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또한 일본인 佐藤화백으
로부터 목판화의 기법을
완성시켜 크리스마스 카
드를 겸한 FOLDER 제작
에 응용하여 많은 찬사를
받았다.

운보의 화법은 동양화에
서양화의 추상적인 기법
이 가미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화의 호장한 기법으로
천의무봉(天衣無縫)의 경
지를 개척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기할만한 것은 1946
년에 같은 화가인 우향
박협현(雨鄉 朴峽賢) 여사
와 결혼하여 결혼 다음해
부터 시작한 부부전이 19
70년대초까지 무려 17회
나 개최되어 큰 화제를
모았고, 세계미인콘테스트
의 심사위원으로도 유명한
것은 알려지지않은 일면
이기도 하다.

3. 썸의 여러가지

- (1) 전지 : 5×5=25매, 천공단식 11,
뒤풀 있음.
- (2) 무공전지 : 5×5=25매, 시쇄품으로
뒤풀 없음.
- (3) 썸첩 : 10(5×2 Pane)×5=50매, 좌
측에 실과 풀로서 합철



Sixth Year, Korean Christmas Seals
Help Fight Tuberculosis!
Buy Korea's Xmas and New
Year Seals 50 for 50 cents (one yen)

Proceeds used for —

1. Prevention and Public Health Literature
2. Free Clinic and Charity Patients
3. Laboratory and Research work
In Tuberculosis

Merry Christmas 1937
Happy New Year 1938

The Ray of Hope

(PRINTED IN KOREA)

야 하爲 키 謹 撲 及 防 後 患 (核 粘) 病 民 國
자 하 隊 實 用 愛 用 은 一 써 이

也 國 全 體 正

五 十 五 年 十 二 月 十 五 日 大 韓 民 國 郵 政 總 局 發 行
一、 郵 票 價 值 一 圓 十 五 分
二、 郵 票 價 值 一 圓 十 五 分
三、 郵 票 價 值 一 圓 十 五 分
四、 郵 票 價 值 一 圓 十 五 分
五、 郵 票 價 值 一 圓 十 五 分

4. 복십자엽서

썰과 같은 내용의 도안으로서 대형도안과 소형도안 두종류가 있고, 뒷면에는 담녹색으로 우편엽서라는 글이 영어와 일어로 인쇄되어 있다.

엽서 크기는 대형이 86×145mm이고, 소형이 73×100mm인데, 대형도안은 누각의 大同門이라는 글자를 읽을 수 있을만큼 선명하다.

도안의 좌측 아래에는 1937-1938년도 표시와 그위에 “保健”이라는 글이 해서체(楷書體)로 인쇄되어 있으며 우측아래에는 복십자가 적색으로 인쇄되어 있다.

그리고, 소형도안의 아래에는 계몽의 취지와 목적으로 주의라는 글로서 기술하고 있는데 내용중에서 “이 그림 엽서는 보건의 촉하장이며 결핵박멸의 영수증이다.”

“이 썰을 애용하는 인은 보건운동의 대장이요 대중행복의 지도자이다”라는



매우 선동적인 글이 흥미롭다.

5. 크리스마스 카드를 겸한 FOLDER

포스터를 조선종이와 모조지 두가지에 인쇄하였는데, 대형봉투에 FOLDER형식으로 정교하게 인쇄한 크리스마스 카



드는 윤보의 도안과 더불어 목판인쇄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누각의 현판에 大同門이라는 글자를 판독할 수 있는 크기로서 우측 아래에는 도안가의 이름인 “김기창”과 낙관이 있는데, 왼쪽 아래에는 일본에서 인쇄했다는 “Printed in Japan”이라는 글이 명료하게 있어 당시 일본에서 인쇄한 귀중한 자료이다.

- 봉투 크기 : 135×200mm
- 대지 크기 : 98×151mm
- FOLDER크기 : 125×190mm
- 도안크기 : 93×135mm

6. 복십자 봉투

1937년 썰의 발행일은 11월 1일이며 이날을 기념하는 판촉 및 계몽용으로서

봉투 둘레에는 연말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호랑가시나무의 장식과 빛나는 북 십자심볼, 2매의 썰이 인쇄되어 있지만 1937-1938 크리스마스 썰 운동, 발행년도와 “공식초일봉피”라는 글이 모두 영어로 인쇄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흠박사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주로 외국에 보내는 서신에 사용된 듯 하다.

실체봉피의 우표는 당시

일본우표들이 붙어 있으며 해주(海州)라는 우체국명의 소인이 명료하게 보이거나 썰 부분에 소인된 것은 극히 드물다.



7. 각종 자료(DATA)

구 분	내 용	비 고
발 행 년 도	1937년	
도 안 내 용	팽이치기	
도 안 자	金基稔	
인 면	23×31mm	
천 공	단식 11	
쇄 색	5도	
판 식	평판	
전 지 구 성	5×5=25매	시쇄품의 무공전지 있음
팬 매 가 액	2전	
Booklet Pane구성	5×2=10매	
Booklet Pane규격	147×73mm ±2mm	
인쇄소	보진재	

8. 참고문헌

- 1). With Stethoscope in Asia, Korea, 1978, Mcl Associates, McLean Virginia by Sherwood Hall
- 2). Green World Seal Catalogue, The christmas seal and Charity stamp society, by Henry Irwin
- 3). 닥터홀의 조선회상, 김동열 역 1984, 동아일보사
- 4). 雲甫 金基稔의 檜畫世界, 1932 月曆 卍